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노충래** · 김소연***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4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과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공격성은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며 이는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는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완화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청소년복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모양육태도, 우울,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9).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플러스 박사후연구원, 교신저자, sykim0318@gmail.com

I. 서 론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휴대폰의 기본 기능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의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검색부터 업무처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83.0%)은 아랍에미리트(90.8%), 싱가포르(87.7%), 사우디아라비아(86.1%)에 이어 세계 4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연합뉴스, 2015).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도 2011년 36.2%에서 2013년에는 81.5%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통계청, 2014).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대중적 확산이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즉,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역기능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및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14.2%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보고되었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29.2%, 성인 11.3%로 청소년 비율이 매우 높고, 청소년의 경우(고위험군 3.3%, 잠재적 위험군 25.9%) 성인(고위험군 1.8%, 잠재적 위험군 9.5%)보다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다각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학령별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33.0%로 초등학교(26.7%) 및 고등학교(27.7%)에 비해 중독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중학생이 중독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따라서 청소년층에서도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및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자한다. 스마트폰은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크다(장혜진, 2002).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시력 저하, 뇌발달, 수면장애 등과 같은 신체건강 문제를 초래하고(Muhammad & Tariq, 2013), 충동성과 스트레스, 불안, 강박증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한다(박민수, 2013; 박용민, 2011; 오광수, 2015).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세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최현석, 이현정, 하정철, 2012),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기 쉽다(이정화, 2010).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은 사이버비행의 위험을 높인다(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예방 및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부모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또래요인 등 다양한 선행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왔다(강방글, 신혜정, 2014; 김대명, 조준수, 2015; 김세란, 2014; 김태진,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조규영, 김윤희, 2013; 조미희, 2012; 최지수, 2014).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인 중 부모 요인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부모가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일차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중학교 시기동안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행동 발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구희정, 2013; 김선숙, 2007; 김재엽, 정윤경, 2007; 유태정, 김석선, 2015; 장미경, 2010),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이를 가상현실의 대인관계에 몰입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는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강방글, 신혜정,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이ერი, 이강이, 2012). 이에 비해 가정에서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기 쉽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대인관계에 몰입하지 않게 된다(김대명, 조준수, 2015; 문두식, 최은실, 2015).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아가 우울(김애경, 2002; 유지혜, 한재희, 2009;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과 공격성(김귀연, 김경연, 2005; 오채미, 공인순, 2007)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를 겪게 만든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김보민, 2015),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 공

격성과 같은 정서문제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심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혹은 중독에 빠지기 쉽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서문제행동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치료적 개입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김보민, 2015; 김세란, 2014; 백소진, 2014; 오영혜, 2014), 청소년의 우울(김애경, 2002; 유지혜, 한재희, 2009;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과 공격성(김귀연, 김경연, 2005; 오채미, 공인순, 2007)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울(김재엽, 황현주, 2016; 김병년, 2013)과 공격성(류경희, 홍혜영, 2014; 서미정, 2011; 유현주, 2014; Yang, Yen, Ko, Cheng & Yen, 2010)이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이나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부모양육태도, 우울 및 공격성,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눠 각각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보다는 한 가지 유형의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분석을 이용하여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우울과 공격성에 의한 간접영향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증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와 부작용의 증가로 인해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의존에 대해 각기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박용민(2011)은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강희양과 박창호(2012)는 지나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금단과 내성을 지니며, 나아가 일상생활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이민석(2010)은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김병년(2013)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심각한 금단현상을 느끼며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의 대인관계 형성에 몰두하게 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김보민(2015)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빠져들어 지나치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들에서 아직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여러 정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과 내성, 금단 증상, 일상생활의 장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여 충동, 불안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요인으로 나타났다(김태진, 2014; 문두식, 최은실, 2015; 최지수, 2014).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태도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원영, 1998).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나 이탈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준호, 1991). 중요한 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여 부모의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민, 2015; 김세란, 2014; 문두식, 최은실, 2015). 여수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세란(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두식과 최은실(2015)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보민(2015)의 연구에서도 모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대명과 조준수(2015)의 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졌다. 김태진(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성취압력이 약할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소진, 2014; 오영혜, 2014; 우임덕, 2013; 조미희, 2012). 서울, 울산 및 경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영혜, 2014). 우임덕(2013)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통제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미희(201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의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일수록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백소진(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불안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대명, 조준수, 2015)와 남학생의 경우 우울이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여학생의 경우 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의 관계를 우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조미희, 2013)는 부모양육태도가 단독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1)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

청소년기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lloy et al., 2001). 우울은 우울한 기분, 체중이나 식욕 감소, 흥미의 상실, 침울하며 절망하는 등의 감정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정서경험을 뜻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급격한 정서변화로 우울과 같은 심리문제를 겪기 쉽다(오창순, 신선인, 장수미, 김수정, 2015). 청소년의 우울은 특히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권위있고 민주적인 부모를 둔 청소년이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둔 청소년보다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levsky et al., 2007). 또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할 경우 청소년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쉬운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합리적으로 지각할 때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덜 겪게 된다(유지혜, 한재희, 2009).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돌봄이 높고 과보호가 낮을수록 청소년은 우울을 덜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은선, 조한익, 2009). 김애경(2002)은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검증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의 거부 및 무관심과 적대적 양육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은 어머니의 거부 및 무관심한 양육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경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희정(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수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의 애정 요인과 과잉간섭 요인, 자율성 존중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초등학생 집단 보다 중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우울에 좀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모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애정 요인이 과잉간섭 요인과 자율성 요인에 비해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문경주, 오경자, 2002). 유태정과 김석선(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 양육태도를 간섭과 통제인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사랑, 돌봄, 보살핌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이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김재엽, 황현주, 2016; 김병년, 2013; 이어리, 이강이, 2012; 전호선, 장승옥, 2014; Sanchez-Martinez & Ostero, 2009).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재화된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황현주, 2016). 전호선과 장승옥(2014)은 우울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서 우울성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기 쉽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보고하였다. 최홍일과 김진희(2013)도 우울감과 같은 내재적 문제를 갖는 대학생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의존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anchez-Martinez & Ostero, 2009). 스마트폰 중독과 유사한 형태인 휴대폰 중독에도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어리와 이강이(2012)는 아동의 우울이 높을수록 중독적인 휴대폰 사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정평화, 노충래, 이경선, 성민현과 송재덕(2014)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경우 모두 우울 정도가 높은 아동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우울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김병년(2013)은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우울이 완전 매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대명과 조준수(2015)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우울과 불안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지수(2014)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우울은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고 한 유형으로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이들이 각각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급격한 정서변화는 공격성과 같은 역기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오창순 외, 2015).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해를 끼치는 적대적 행동을 의미한다(Eron, 1987).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귀연, 김경연, 2005; 김재엽, 정윤경, 2007; 오채미, 공인순, 2007; 최준석, 류진아, 2012), 이때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공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귀연과 김경연(2005)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울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이라고 인지하는 청소년들이 공격성이 높고 학교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정윤경, 2007). 장혜림과 정익중(2013)의 연구에서도 과잉 간섭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채미와 공인순(2007)은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에 보상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선숙(2007)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부모감독과 자녀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고 부모애착은 심리적 공격성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준석, 류진아, 201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서미정, 2011; 유현주, 2014; Yang et al., 2010). 청소년기는 위험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대표적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은 청소년에게서 흔히 보고된다(서미정, 2011). 이러한 청소년의 공격성은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에 더 몰두하게 된다(류경희, 홍혜영, 2014). 류경희와 홍혜영(2014)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보다 분노감과 적대감 같은 정서적 공격성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방글과 신혜정의 연구(2014)에서 청소년이 높은 공격성향을 보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주(20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공격성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Yang외의 연구(2010)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진숙, 문현주와 황승일(2014)은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간에 공격성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휴대전화의존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격성이 학대경험을 매개하여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주, 2014).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스마트폰 의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에 있어 매개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진숙, 문현주와 황승일의 연구(2014)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한 유형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였는지를 검증하였지만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각각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영향과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우울 및 공격성 문제와 스마트폰 의존의 문

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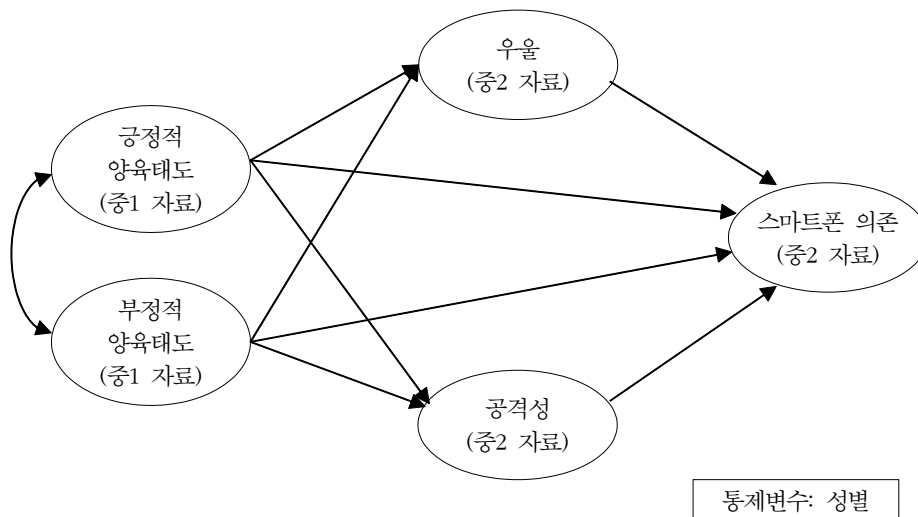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는 2010년 기준 전국 초1, 초4, 중1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표집하였는데, 16개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하여 1개 시, 도당 3개교 이상이 되도록 선정한 후 학교별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절차를 통해 2010년에 표본 추출된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2,092명과 5차년도 2,070명 중에서 4차년도의 부모양육태도와 5차년도의 우울, 공격성, 및 스마트폰 의존 문항 모두에 응답한 1,807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5차년도에 조사되지 않았고 종단적 패널자료의 장점을 이용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한 중1자료와 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심리정서적 문제의 우울과 공격성(매개변수)의 중2자료,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의 중2자료(종속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연령대보다 청소년의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중학생이 중독에 가장 취약하였다. 또한 이 시기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심리적 불안정을 겪기 쉽고 낮은 통제력으로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일탈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김미영, 2003),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3. 측정 도구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원자료 설명을 참고하길 바라며,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척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의존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이시형 등(200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부호화하여 합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신뢰도는 .881로 나타났다.

2) 부모양육 태도

부모양육 태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긍정적 양육태도는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일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결과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부호화하여 합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881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867이었다.

3) 우울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우울 척도 13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도 마찬가지로 결과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역부호화하여 합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신뢰도는 .909로 나타났다.

4) 공격성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자기보고형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재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부호화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신뢰도는 .825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에 제시된 변수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구한 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참고하였다. 매개효과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해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연구대상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15점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2.42점이었다. 우울의 평균은 1.78점이었으며, 공격성의 평균은 1.95점, 스마트폰 의존의 평균은 2.26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1 미만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한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수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r=-.20$, $p<.01$), 부정적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의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2$, $p<.01$). 또한 우울과 공격성은 스마트폰 의존에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 $p<.01$; $r=.30$, $p<.01$).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1,807)

변수	1	2	3	4	5
1. 긍정적 양육태도	1				
2. 부정적 양육태도	-.09**	1			
3. 우울	-.28**	.09**	1		
4. 공격성	-.24**	.14**	.55**	1	
5. 스마트폰 의존	-.20**	.12**	.33**	.30**	1
<i>M</i>	3.15	2.42	1.78	1.95	2.26
<i>SD</i>	.49	.57	.58	.56	.66
skewness(<i>SE</i>)	-.28(.06)	.24(.06)	.49(.06)	.16(.06)	.35(.06)
kurtosis(<i>SE</i>)	.43(.12)	.20(.12)	-.13(.12)	-.24(.12)	.10(.12)

** $p < .01$.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하위 척도로 측정변수화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의 하위척도로 측정변수화하였다. 단일차원척도로서 하위개념이 없는 우울은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공격성과 스마트폰 의존은 각 문항을 각각 측정변수화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값($\chi^2=2097.026$, $df=242$, $p<.001$)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는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FI=.904, TLI=.901, CFI=.914, RMSEA=.065). 또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화계수는 .50~.94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NFI	TLI	CFI	RMSEA
2097.026	242	.000	.904	.901	.914	.065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구조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우울,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매개하며 스마트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연구모형의 추정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값($\chi^2=2064.591$, $df=262$, $p<.001$)을 제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NFI=.907, TLI=.905, CFI=.917, RMSEA=.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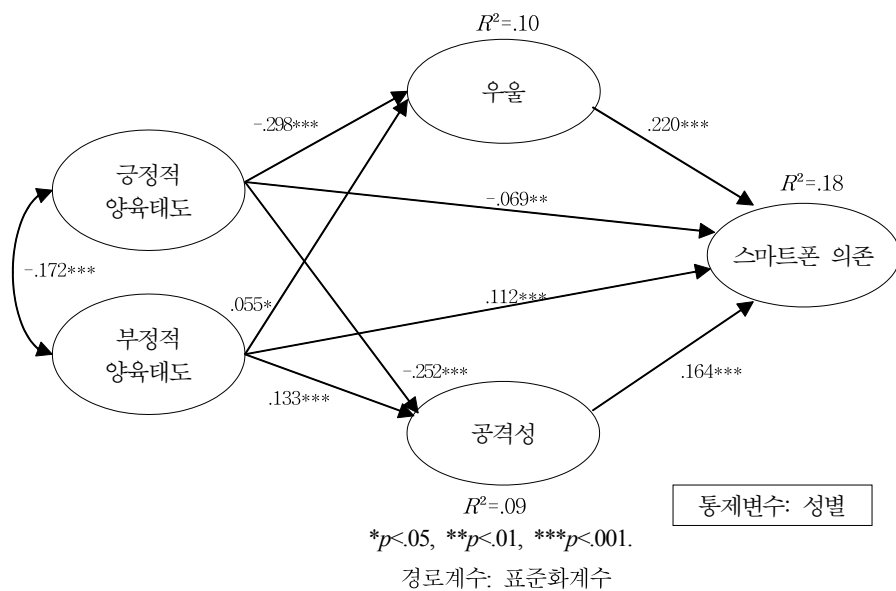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NFI	TLI	CFI	RMSEA
2064.591	262	.000	.907	.905	.917	.062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결과(표 4 참고),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69$, $p < .01$),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2$, $p < .001$).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우울($\beta = -.298$, $p < .001$)과 공격성($\beta = -.252$,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beta = .055$, $p < .05$)과 공격성($\beta = .133$,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공격성도 스마트폰 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0$, $p < .001$; $\beta = .164$, $p < .001$). 즉,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 수준이 낮아지며 우울과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며 우울과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경로	B	β	SE	$C.R.$
긍정적 양육태도	→ 우울	-.305	-.298	.028	-11.983***
긍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235	-.252	.026	-8.909***
우울	→ 스마트폰 의존	.146	.220	.023	6.237***
공격성	→ 스마트폰 의존	.120	.164	.026	4.559***
긍정적 양육태도	→ 스마트폰 의존	-.047	-.069	.018	-2.598**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049	.055	.023	2.155*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107	.133	.022	4.861***
부정적 양육태도	→ 스마트폰 의존	.067	.112	.016	4.292***

* $p < .05$, ** $p < .01$, *** $p < .001$.

1. 매개효과 검증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간의 관계를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표 5 참고). 분석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07, $p<.01$; 총효과=-.176, $p<.01$). 긍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긍정적 양육태도→우울→스마트폰 의존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 효과는 -.066(-.298×.220)이고, 긍정적 양육태도→공격성→스마트폰 의존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41(-.252×.164)이다. 이 결과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 중 우울이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부정적 양육태도도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34, $p<.01$; 총효과=.146, $p<.01$).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부정적 양육태도→우울→스마트폰 의존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12(.055×.220)이고, 부정적 양육태도→공격성→스마트폰 의존 경로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22(.133×.164)이다. 즉,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 중 공격성이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주요 변수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긍정적 양육태도 → 스마트폰 의존	-.069*	-.107**	-.176**
긍정적 양육태도 → 우울	-.298**	—	-.298**
긍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252**	—	-.252**
부정적 양육태도 → 스마트폰 의존	.112**	.034**	.146**
부정적 양육태도 → 우울	.055*	—	.055*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133**	—	.133**
우울 → 스마트폰 의존	.220**	—	.220**
공격성 → 스마트폰 의존	.164**	—	.164**

Notes. * $p<.05$, ** $p<.01$. $N=1,807$.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학년 패널의 4차년도(2013)와 5차년도(2014)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일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준호, 1991; 이원영, 1998)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현실의 대인관계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비합리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백소진, 2014; 오영혜, 2014; 조미희, 2012)를 지지한다. 부모가 비합리적이고 과잉간섭과 과잉기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의사소통에 집중하며 스마트폰 의존에 빠지기 쉽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요인인 우울은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아지고(김재엽, 황현주, 2016; 최홍일, 김진희, 2013), 우울 성향이 높은 사람이 우울로 인한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에 빠지기 쉽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전호선, 장승옥, 2014)를 지지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도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

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에 빠지기 쉬움을 보여주는데 이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스마트폰 의존을 초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류경희, 홍혜영, 2014)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요인 또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예방과 개입 전략을 세울 때 부모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우울, 공격성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 및 공격성 모두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부분매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을 감소시키며 스마트폰 의존 감소에 기여하고,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이 심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김대명과 조준수의 연구(2015)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부분 매개 효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완화시켜 스마트폰 의존을 완화시키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악화시켜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의존에 우울 및 공격성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올바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자각하지만 실제로 자녀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양육태도 및 구체적 대화방법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는 시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및 Wee Center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부모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능력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파악하고,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다양한 부모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자녀가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행하기 이전에 부모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각적인 예방적 프로그램과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개입프로그램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인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다양한 개입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의 Wee 클래스 및 교내 상담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과 같은 심리 문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통해 부정적 심리적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및 학교사회복지 등을 통해 주기적인 우울, 공격성 스크리닝이 실시되어 조기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울과 공격성과 같은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또래와 함께 하는 집단상담,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치료적 개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Wee 센터, 치료협력병원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 문제와 함께 우울, 공격성 등의 심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에서 스마트폰 의존 예방 및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때 부모양육태도 개선 방안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완화 방안을 함께 포함하는 복합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입의 중점을 부모양육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완화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에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인

지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청소년들을 파악한 후 그들의 스마트폰 의존문제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심리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개선하여 자녀들의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문제 및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과 우울 및 공격성의 위험이 높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Wee School 및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연계한 가족치유캠프와 같은 가족중심의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들 및 부모가 함께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들의 자가보고형 설문조사로 측정하였다. 자가보고형 설문조사로 측정할 경우 스마트폰 의존에 대해 문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설문조사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보다 높일 수 있길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방글, 신혜정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213-241.
- 강희양,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구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
수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4.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
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대명, 조준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
효과. **교육종합연구**, 13(2), 151-169.
- 김미영 (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 49-81.
- 김보민 (2015). **모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숙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 김세란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력과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3), 49-81.

- 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9.
- 김준호 (2001).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7, 1-24.
- 김재엽, 정운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재엽, 황현주 (2016). 아동학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3, 105-133.
- 김태진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민수 (2013).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2), 143-162.
- 연합뉴스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0AKR20150707175600017.HTML>에서 2016년 4월 18일 인출.
- 오광수 (2015).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이 공감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혜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 심리적 강인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창순, 신선인, 장수미, 김수정 (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p.289). 서울: 학지사.

- 오채미, 공인순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39-149.
- 우임덕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지혜, 한재희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121-139.
- 유태정, 김석선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4(20), 127-135.
-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2), 417-446.
- 이민석 (2010).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2), 69-102.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외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제 2002-1호)**.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원영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 13, 1-18.
- 이정화 (201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휴대폰 사용현황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북아 문화연구**, 25, 337-351.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6), 33-61.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호선, 장승옥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103-129.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평화, 노충래, 이경선, 성민현, 송재덕 (2014).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및 성별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47, 93-123.
- 조규영, 김윤희 (2014). B시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산해양교육연구**, 26(1), 166-178.
- 조미희 (2012).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준석, 류진아 (2012). 성별에 따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 **상담학연구**, 13(1), 273-290.
- 최지수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 증상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5), 1005-1015.
- 최홍일, 김진희 (2013). 아동·청소년기의 방임적 양육 경험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 127-153.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014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4). **2014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Crossfield, A. G., & Morocco, A. (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97-42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Hong, S., Malik, M., & Lee, M. K. (2008). Testign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ren and Family Studies*, 16(1), 39-47.
- Muhammad, S., & Tariq, R. S. (2013). Impact of smartphone's on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98(2), 216-226.
- Sanchez-Martinez, M., & Ostero, A.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cell phone use in adolescents in the community of madrid(Spain). *CyberPsychology & Behavior*, 12(2), 131-137.
- Yang, Y., Yen, J., Ko, C., Cheng, C., & Yen, C.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problematic cellular phone use and risky behaviors and low self-esteem among Taiwanese adolescents. *BMC Public Health*, 10, 217-224.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Nho, Choongrai* · Kim, Soyoun*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4th and 5th waves of the 2010 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Our analysis indicated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d negative effects on smartphone dependency,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positive effects on smartphone dependency.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was partially mediated by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was also partially mediated by depression and agg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further suggestions are provided to reduce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by improving parenting attitudes and decreasing depression and aggression amongst adolescents. Finally,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suggested.

Key Words: parenting attitudes, depression, aggression, smartphone dependency

투고일: 2016. 6. 13, 심사일: 2016. 8. 17, 심사완료일: 2016. 8. 31

* Ewha Womans University